



차고영업 문제의 출발은 준공영제! 해답은 완전공영제!



차고지영업 중단은 각 회사 민주파의 문제제기로 인한 성과이다 !

그러나 **무대포식 대안없는** 차고지영업 중단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버스노동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중교통 공공성확대를 위해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공동관리위원회 모두의 개혁을 통해 그 결과가 보편적 복지인 "이동권 강화! 노동권 강화!"에 이바지 되도록 합의한 사실을 알 것이다.

- ▶ 시내버스업체는 개혁과 쇄신을 통한 투명경영합리화를!
- ▶ 노동조합은 노동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을!
- ▶ 청주시 교통행정은 시민, 노동 친화적 관점의 합리적 운영과 소통을!

지난 2013년은 우진교통 노동조합 "마중물"을 더불어 비정규직 등 노동환경 개선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후 동일 · 동양 등 각 사업장의 노조민주화 투쟁이 활발하였다.

그렇듯 차고지 영업 중단 배경은 우진 투쟁의 필두로 각 회사 동일, 청신 등 노조민주화 세력의 투쟁으로 이에 놀란 각 회사 노조위원장들의 전격적 수용의 결과이다.

우진교통 노동조합은 환영하는 바이다. 차고지 영업 중단은 노동 친화적 결과이다.





그런데 왜 우진은 노동 친화적 결과인

차고지 영업 중단에 대해 문제제기하나?

1) 대책없는 중단은 필연적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

- ▶ 수입이 줄고 보조금 또한 줄어들고 있는 현실
- ▶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차고지 영업이 중단되면서 심야추가 시장이 축소되는 것
- ▶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 ▶ 야간 신규수요를 창출 못하고 시대를 거꾸로 가는 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 ▶ 합리적인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공멸하고 말 것



※대안 = 완전 공영제를 전제로 한 준공영제 도입, 보조금 증액

2) 대책없는 중단은 결국 합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으로 종결된다!

- ▶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발생한다.
- ▶ 청주시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노선연장을 추진한다.
- ▶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으로 민원을 핑계로 노선연장, 노동시간 증가가 초래된다.
- ▶ 노선연장이 임금의 증가와 보조금증액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일부 헛소문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 ▶ 결국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파괴된다.



※대안 = 노동시간 연장 안한다는 약속과 제도적 장치 필요

3) 우진은 자주관리 기업이고 물주도 자본가도 없다.

- ▶ 우진교통은 자주관리기업으로서 5개사와 성격이 다르다.
- ▶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자본가도 없다
- ▶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순환배차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 따라서 고정배차와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며, 우리 버스노동자들은 서로 이해하고 단결하자!



“결국은 청주시의 협소한 행정 편의적 정책이 초래한 결과”
현장은 같은 버스노동자끼리 갈등만 증폭된다.

이상과 같은 대안이 없으면 버스노동자들끼리 차고지营业을 두고 서로 다툰다.

우진은 근본적 해결점이 없는 현실을 우려하여 무조건적 대안없는 차고지 영업 중단이 가져올 피해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행보와 조율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권 보장은 대안없는 차고지 영업 중단만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야를 갖자!

결국은 합법적인 민원을 핑계로 노선연장, 노동시간 증가가 초래된다!

잘못하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버스노동자 여러분! 힘차게 외쳐 봅시다.

"보편적 복지! 이동권 강화! 노동권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하라!
민원을 핑계로 노동시간 연장 안한다는 약속과 안전장치를 이행하라!

